

강아지 보단 고양이...반려묘 등록 늘고 있다

통계로 본 2023 광주·전남 반려동물 실태

광주·전남에서 지난해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7만 8172마리(광주 7만5704마리, 전남 10만 2468마리)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은 3045마리로 전년 대비 2.9%감소(91마리 감소)했지만, 전남에서는 전년 대비 319마리가 더 늘어 총 9703마리가 버려졌다.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광주·전남에서도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선택하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등록된 반려견은 지난 2021년 1만 3683마리에서 2022년 7621마리, 2023년 6408마리로 매년 감소했다. 전남도 2021년 2만 2082마

리, 2022년 1만 1920마리, 2023년 1만 1677마리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반려묘 등록 건수는 2021년 70마리에서 2022년 257마리로 대폭 늘어났고 2023년에는 310마리가 등록했다. 전남도 2021년에는 12마리만 등록했지만 2023년에는 164마리가 등록을 마쳤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대상(3개월령 이상)으로 의무지만 반려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등록이 아닌 반려묘의 등록이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 고양이 자연사 전국 최고=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광주지역 길고양이증성화

(TNR) 사업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3160마리의 길고양이에 대한 TNR을 실시했다. 이는 전년대비 1240마리 증가(64.6%)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남은 4665마리에 대한 증성화를 마쳤고 지난해 대비 18.0%(713마리) 증가했다.

반면 광주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3개월 미만 새끼 고양이의 자연사율은 84.36%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1452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입소했지만 이중 1225마리가 자연사한 것이다. 전남은 1355마리 중 859마리가 자연사(63.39%)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소 인력난을 이유로 꼽고 있다. 새끼고양이는 하루에 5차례 이상 수유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케어가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있는 광주 동물보호소 직원은 13명으로, 세종(4명)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다. 광주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31명으로 대전 3개월 미만 고양이 자연사율은 57.62%로 나타나 대조된다.

다만 인도적 처리(안락사)된 구조동물 수는 광주가 3045마리 중 308마리를 안락사(10.11%)해 전국에서 6번째로 낮았다. 전남은 9703마리 중 1861마리 안락사(19.17%)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광주 동물보호관 성과 전국 최저=광주지역 동물보호관은 세종(6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다.

동물보호관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동물학대, 유기,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활동을 한다. 광주지역 동물보호관은 8명에 그쳤고,

전남은 53명에 달했다.

광주지역 동물보호관 성과는 지난해 3건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저조했다. 광주 동물보호관들은 지난해 동물관리미이행 1건, 동물학대 1건, 기타 1건 등 3건의 활동을 했다. 한 명 당 1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셈이다.

전남은 53명의 동물보호관들이 62건의 실적을 냈다. 동물관리 미이행 적발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명예 동물보호관의 활동도 광주지역이 저조했다. 수의·축산학과 졸업 등 전문적인 부분을 고려해 모집한 명예동물보호관은 지난해 광주에서 28명이 활동했다. 4시간에 5만원 기량의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들은 교육·홍보·상담·지도, 학대행위 신고·정보 제공, 보호관 직무 수행지원,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등 다양하지만 광주지역 명예 동물보호관 활동은 교육·홍보·상담·지도에 그쳤다. 반면 전남은 28명으로 광주와 숫자는 같지만 4개 항목 모두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다. /김대민 기자 kdi@



희망 전공 미리 체험해요 광주시 동구는 24일 조선평대학교에서 광주 5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 전공학과를 미리 체험해보는 동구 온마을이음학교 '미리대학'을 열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보성 폐교 운동장, 논으로 둔갑했다?

도교육청 관리 부실 지적

보성군의 한 폐교 운동장이 논으로 둔갑해 교육 당국의 폐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된 보성 영등초등학교 운동장에 임대 사업자가 벼를 심어 지역 주민과 동문이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04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면서 20년간 방치됐으나 지난달 1일 마을 이장인 A씨가 법인대표로 있는 한 영농법인이 보성교육지원청과 임대 계약을 했다.

영농법인은 2027년 5월까지 3년간 딸기와 쌀배추 등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 행정기관과 학교 등에 납품한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내용과 달리 운동장에 벼를 심었고 1만여㎡에 달하는 운동장이 논으로 바

뀌었다.

지역 주민과 동문은 학교 인근 도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보성교육지원청은 이달 17일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이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교육지원청에 "사업 부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동장에 벼를 심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은 논문을 내어 "학원인구 감소로 폐교도 안타까운데 이곳에 불법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폐교 활용에 대해 고발을 의뢰하고, 원상복구 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 배상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미래 세대 계승 위해 5·18 명칭 재정립해야”

오월 단체 토론회

5·18민주화운동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5·18의 명칭을 재정립하고 확장된 역사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월광장, 오월이다, 광주여성회 등 단체들은 24일 광주시 동구 5·18기록관 7층 강당에서 '5·18 재조명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미래 세대에게 5·18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5·18의 역사적 성격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주철희 박사(역사공간 벗 대표)와 이동기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 이재의 박사, 홍성철 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

의회 사무처장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동기 교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5·18의 성격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짧은 시간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결집하고, 조직화되고, 무장 또는 비무장으로 투쟁하는 것은 단순 ‘운동’이라는 단어로 포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의 박사는 “1985년에는 국가가 자행하는 ‘폭동’이라는 왜곡 골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5·18민주항쟁’ 표현을 썼지만, 최근에는 민간 차원에서 왜곡 시도가 심해져 아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박제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며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왜곡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5·18의 성격을 새로 규정하려면 ‘항쟁’의 의미가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철희 박사는 “역사학적으로 ‘운동’은 단순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불과하나 ‘항쟁’은 불의에 대해 민중이 항거한 것을 뜻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파괴시키려는 행위에 맞서 싸운 민중의 싸움이므로 ‘민주항쟁’처럼 항쟁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5·18의 역사적 성격에 ‘광주’, ‘5·18(날짜)’, ‘민주’ 등 단어가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는 각 단어의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대 학생들, 총장축제 프로그램 직접 만든다

조선대 학생들이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된 '제21회 광주 추어의 총장축제'에서 학과 수업을 통해 직접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10월 조선대와 협력해 총장축제 기간 동안 재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선대 K-컬처 공연·기획학과 학생들이 정규수업에서 총장축제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직접 현장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현장학습을 한다.

앞서 조선대는 K-컬처 공연·기획학과 2~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장축제 예술의 거리 기획단인 '총에 기획단'을 모집했다.

K-컬처 공연·기획학과는 지난 2020년 신설된 학과로 공연 연출, 기획,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

링, 무대스텝 등 엔터테인먼트 등을 공부하는 학과다.

기획단은 2024학년도 2학기 중 '문화콘텐츠산업론', '축제와 이벤트 기획', '뮤지컬워크숍' 강의 들을 예정인 학생들로 3팀 26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원들은 방학 기간부터 2학기 중간고사 기간까지 '총장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수업을 듣고 시민 참여형 놀이프로그램을 기획해 동구 예술의거리 일대에서 현장 실습을 할 예정이다.

입학 동구정장은 "대동(大同)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해 총장축제는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가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청년들이 만드는 축제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